

요즘 어떠세요?

鄭秀雄 회우와 차 한잔 나누며

요즘 정수웅(64세) 회우의 하루는 24시간도 모자란다.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는 '중국 대운하' 취재 촬영을 마무리 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한 달이면 20여 일을 중국과 일본에서 보낸다.

대운하는 상해 남쪽 영파에서 북경까지 이르는 장장 1,500여 km의 운하를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인 수(隋)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운하를 통해 자연과 인류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이 동아시아 역사의 100년사 파도가 거기에 있기에 중간지적인 입장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수웅 회우는 일제 때 임시정부가 이 운하를 이용, 일본군을 피해 피난 했으며 지금 중국이 경제적 급성장을 이룩한 것도 이 운하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회우는 이 운하가 우리나라 고대사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양제가 물자 운반과 고구려 침략을 위해 이 운하를 뚫었습니다. 신라 때는 운하가 무역의 길이었고 장보고가 탐나 서주(徐州)에 있으면서 신라와 교역할 때 해상왕이 된 것도 운하 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운하(중국에선 京杭 大運河라 부른다)는 고대 하이웨이였습니다"

新淸海峽에 매료되어 다큐에 도전 중국 역사 유산엔 두 마리 용이 있다고 한다. 서쪽으로 뚫쪽으로 이어지는 '만리장성'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경항 대운하'가 그것이다. 이 두 마리 용은 북경에서 만난다.

정 회우는 이 거대한 운하를 15세기에 제주도에 거주했던 선비 최부가 저술한 '신흥해록(新淸海峽)'에서 접하게 된다. 최부는 제주도에선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을 거쳐 압록강을 넘

어 귀국하기까지 일년 반 기간의 견문을 기행문식으로 써서 남겼는데 그것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뒤지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 기행문에 매료된 정 회우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투혼을 발휘하게 됐다.

2005년 12월 촬영이 시작됐다. 일체

다큐멘터리 제작에 투혼을 발휘 중국 大運河 다큐로 도전



의 보조 요원 없이 감독과 촬영 편집 등 모든 것을 일년 넘게 혼자서 해낸 정 회우는 피약벌에서 일하고 중국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즐기니 중국에서 두 차례나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진득이' 근성은 포기를 몰랐다.

대표작 '초본'으로 골든 하프상 수상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승리한 후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땅은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것 보다 훨씬 광대했습니다. 또 대운하에 있는 주산(절강성 소재)에는 심청이가 성주인 심 국공의 부인으로 들어가 아버지 심 봉사에게 관음상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청은 원래 심씨가 아니라 흥씨 였는데 심 국공의 부인으로 입적되면서 심씨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 정수웅 회우는 그의 대표작인 '초본(草墳)'으로 더욱 유명하다. 초본은 죽은 이를 짚으로 덮어 3년간 풍화시킨 뒤 바다에 띄워 보내는 진도의 風葬을 다룬 다큐다. 정 회우는 30년 전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니까 1977년 때 였죠. 그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빠따귀 나오고 시신이 나오는 건 새마을운동에 저해된다며 不放 관정을 받았습니다. 제작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유포방송연맹이 주는 최우수상인 '골든 하프상'을 탔고 결국 '한국방송대상'도 받았다. '골든 하프상' 수상은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고 그 결과 세계 24개국에서 방송됐다.

방송대상의 행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듬해인 1978년에는 '불교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로 한국방송대상을 받았고, 1979년 '비구니의 세계, 석남사'와 1980년 '신라의 신비, 대왕암'으로도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4년 연속 방송대상을 받은 사람은 정 회우 말고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다큐멘터리 '석남사'를 제작 할때, 靜中動의 세계를 어떻게 영상화 하느냐가 정회우의 큰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중계차를 생각해냈다. "즉시 중

계부장을 찾았고 중계차를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중계부장이 법다 욕을 하면서 '이런 미친 놈이 있나. 가뜰이나 장비가 부족한데 일주일이나 빌려 달라고? 80분짜리 다큐에 중계차로 찍는다는 놈 처음 본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설득해 중계차를 빌리는데 성공했다. 스님의 禪장려 하나를 찍는데 머리에 서 무릎까지 털 다운 하는데 5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아마도 중계차로만 완전 제작한 다큐는 이것이 최초 일 것이다.

빛독축으로 한강 투신 결심하기도 정 회우의 과거는 영광으로만 접철되지 않았다. 그는 1982년 KBS를 퇴직한 후 1985년 '다큐 서울' 제작사를 설립 했다. 그런데 2년도 못 가서 빛에 허덕이게 됐다. 만든 제작물의 불방률이 높아 40~50명에 달하는 사원의 봉급은 고사하고 빛이 수억에 달했다. 빛 독축에 미칠 것 같았다고 했다. "그 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두 번이나 건너 뛴조 뛰 어 내려 죽으려고요"

정 회우는 일본TV를 통해 작품 활뎀을 벌여 왔다. 자연히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다큐도 많이 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KBS가 2005년도에 광복 60주년 특집으로 방송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다. 그의 끈질긴 추적과 설득으로 명성황후 살해범의 후손들은 경기도 남양주 흥릉에 있는 황후의 묘소에 찾아가 사죄의 절을 드렸다. 시해 사건이 일어 난지 꼭 110년 만의 일이었다. 정 회우는 이 작품으로 일본방송 최고의 상인 '세계의 명작품 명 감독상'을 수상했다. 외국인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사물을 대등한 시각으로 겸손하게 보는 것이다.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것이다. 인내력을 가져라. 나뭇가지에 있는 새를 날리기 위해 돌을 던지지 말고 새가 날아 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사실상 한국의 다큐멘터리 개척자인 정수웅 회우는 후배들에게 말을 남겼다.

글: 김 신 기 / 사진: 이 중 문

2007년
2월 1일
제 58 호

KBS 社友會報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팩스 (02) 3210-1449

2007년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10대 회장 선출 / 결산·예산(안)승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는 2007년 정기총회를 2월 23일 오전 11시 KBS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2월 1일 공고했다. 이번 정기 총회는 06년 수치 결산(안) 및 07년 사업계획·수지예산(안)을 승인하고 제 10대 회장·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총회를 마친후 IBC 로비에 스탠딩 부패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지회 신임회장에 진규현 회우 추대

전주지회는 1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진규현 회우를 추대했다. 그리고 이날 총회는 2006년 결산과 2007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사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온 김남규 회장과 권오정 총무에게 공로패를 전달, 화합을 다졌다. 전주회우는 1월 16일 현재 50명을 돌파했다.

- 남광희 / 500-856, 광주 북구 운안2동 479-15 (062-522-1350, 018-641-3500)
- 김태용 / 500-829, 광주 북구 신안동 149-9 (062-512-0842)
- 박태규 / 412-7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셀터마을 1-2단지 108-1801 (031-813-4242, 011-225-5249) tgpark@kbs.co.kr
- 양희선 / 501-813, 광주 동구 동명동 154-42 금식그린빌라 2001호 (062-222-6300, 019-9173-6300)
- (주)화인코리아 상임고문 061-330-4510
- 조지연 / 157-200, 서울 강서구 가림동 1495 한보 103-304 (02-6736-0573, 011-756-0573)
- 오산근 / 158-808, 서울 양천구 목동5 516-7 (비주말 아트센터 02-781-8725, 011-478-1446)
- 이인원 / 411-31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현대307-1301 (031-912-9938, 011-311-9938) 한국대학신문 회장 2025-6000
- 최형주 /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611호 (02-483-4872, 011-750-4872)
- (주)신세계기획 대표이사 eogusdk@nate.com
- 김종명 / 142-772,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삼성 103-1102 (02-992-0067, 016-227-3481)
- (주)신세계기획 eogusdk@nate.com
- 이재성 / 139-050, 서울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 109-1202 (02-781-3232, 011-9950-4276) jslee12@kbs.co.kr
- 정홍진 /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신천지이츠 302-201 (053-766-8959, 016-879-9859) jy382@hanmail.net
- 김연진 / 449-844,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LG빌리지 3차 1003호 (031-276-8321, 018-729-0005) shane8321@net.com 한국사이버대학 교수 (02-708-7700)
- 구지광 / 456-822,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마정리 100-48 대림동산 전원빌라 106-104 (031-618-5796, 016-9239-0228)
- 김민기 / 158-056, 서울 양천구 목동5 목동5 606-505 (02-2647-2786, 011-898-4145) mick@kbs.co.kr
- 박현영 / 407-310, 인천 계양구 오류동 용흥동 213-2 초정마을 투산 303-202 (032-551-3090, 011-748-7979)
- 우석호 / 482-841, 경기 양주군 광적면 광서리 335-4 (031-736-2030, 016-715-1905)
- 이준호 / 463-4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대동 중앙하이츠빌리지 107-202 (031-716-7589, 011-794-1027)
-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 0117941027@nate.com)
- 김진기 / 136-062,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신건영류민빌 104-303 (02-921-4115, 011-729-4815) jinkim41@hanmail.net
- 이태수 / 158-056, 서울 양천구 목동5 신사가지 106-206 (02-2647-4079) ts11948@yahoo.co.kr
- 조원석 / 152-070,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이츠 308-2403 (02-6737-5917) wonsuk@kbs.co.kr
- 김기철 / 138-240, 서울 송파구 신원동 잠곡 9-105 (02-6482-1253, 010-3194-6253) kichul45@kbs.co.kr
- 유동기 / 151-0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우푸르지오 121-2204 (02-852-9534, 017-334-9534)
- (주)비주얼아트센터 (02-781-8795)
- 장종덕 / 463-85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림테크빌D동 2503호 (031-716-6449, 011-372-6441)

작년 협찬금 280만원 답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회에 협찬금을 회사한 회원명단과 협찬금액은 다음과 같다.

▲ 김성현 100,000	▲ 서병주 1,000,000	▲ 이상익 100,000	▲ 정성호 100,000	▲ 이장춘 200,000	▲ 최덕용 100,000	▲ 양성규 200,000	▲ 손소진 200,000	▲ 채유석 200,000	▲ 김선초 200,000	▲ 최용순 200,000	▲ 김수웅 200,000	▲ 김은구 200,000
---------------	-----------------	---------------	---------------	---------------	---------------	---------------	---------------	---------------	---------------	---------------	---------------	---------------

(접수 순)

회비내신분

2000년/ 이명환	장민용	이은섭
2003년/ 이명환	장민용	이은섭
2004년/ 이명환	이명환	이은섭
2005년/ 신영식	김종교	김태용
장민용	신영식	양성규
남광희	박남훈	이은섭
이명환	이수익	이은섭
이태형	최삼국	김창남
고세혁	구자광	김광수
김기철	김본현	김민기
김성철	김연진	차영
김영태	김영희	김승만
김진기	박남훈	박태규
박현영	배갑용	백승대
양희선	오산근	왕경태
원창호	유동기	유동은
유인동	윤재문	이건복
이영준	이홍복	이은섭
이준호	이태수	이혜영
전준모	정용진	정창무
조근제	조두현	조성석
조원석	조지연	차효석
전영환	최규열	최덕용
최영자	최형주	하태준
홍승수	홍영남	홍준모
2008년/ 고세혁	김영태	이인원
하태준	2009년/ 고세혁	왕경태

(06년 12월 20일~07년 1월 18일 회비납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2007년도 정기총회 공고

분회 정관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정기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회에 참석못하는 회원은 동봉한 엽서의 위임장을 기재하여 2월 20일까지 분회 사무국으로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2월 23일(금) 낮 11시
▲ 장소 : KBS신관 라디오 공개홀
▲ 안건 : ① 2006년도 수치결산(안)
②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제 10대 회장 및 부회장·감사 선출
④ 기타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서 병 주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방송비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 희망 2007 신년음악회
방송 : K1TV 2007. 1. 1(월)
MC : 한성준 황수경
연출 : 오세영 외 / PD : 하원

신년 벽두에 아름다운 음악과 축하루드가 넘치는 음악회였다. 주인공 반창장이 십여 차례 원석으로 소개되고 한승수 전 총회의장과 무대에서 만나 청찬과 격려의 인사가 자연스러웠다. 외국대사 6인의 '꽃밭에서'는 성의있는 열창이었고 전체적으로 벽이 없는 분위기였다. 사물놀이와 관현악 협주곡으로 막을 열고 한국 환상곡으로 끝을 마친 구성도 호감을 주었다.

▲〈KBS 스페셜〉 호곡나무 사람들

방송 : 2007. 1. 13(토)
PD : 조인석 글 : 강남우
나레이션 : 김세원 / 연출 : 양창민

추적 60분 신년특집 - 민심을 듣는다

삼정장 500리길에 하나 남은 졸배를 타고 건너간 곳 곡성 호곡마을. 순박한 시골 할머니들 속에 베트남 며느리 통아(28)가 주연으로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전원드라마였다. 삼정장을 따라서 모두가 비경이지만, 인정과 풍경이 그대로 어우러진 마을이 마냥 정겨웠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움이 공감되었다.

▲〈추적 60분〉 신년특집 민심을 듣는다
방송 : K2TV 2007. 1. 10(수), 17(수)
MC : 구수환 / 취재연출 : 김영철 최지원, 류중훈, 권혁만

제1부 '자갈치 아줌마와 목포 韓선장', 제2부 '국민 절반의 희망, 내 집 마련의 꿈'

직전) 4년전의 지지도에 따라 흥미 있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김포 신도시 지역의 민심은 당혹감을 주었다. 자고나면 1~2억씩 뛰는 아파트값, 포기한 젊은 부부들, 마음도 몸도 병 들고, 개발구역 축소로 새 집을 헐고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주민들은 어찌 할거냐.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남) "무슨 나라가 이러냐?"(여) 매아리 없는 조용한 호소이지만 가슴을 찢었다. 국민이 왜 힘이 없는가? 조선왕조 시대에도 만 백성이 우선이었고 민(民)이 어렵고 두려웠는데... 기대했던 대선 예비 후보들도 유보이거나 원론적인 말로 때우는 듯하여 실망스러웠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 53.4%, 신뢰 9%라는 체점표로 끝맺었다.

참여정부 4년, 정체된 경제와 해일처럼 밀어부치는 부동산 광풍에 지친 슬직한 민심을 체온까지 느끼게 전달해 준 취재구성이었다.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단과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여론 조사가 도표가 설득력있게 신뢰도를 높였고, 외국의 사례를 현지 취재로 대안을 제시하여 공감을 주었다. 1. 2부를 통해서 미묘한 현상과 안타까운 현실이 노출되었다. 참여정부 4년에 대해서 자갈치 아줌마(경제바람), 봉하마을(조선)광주(중간)대전(셀링) 대구(비판적)광주(충남)농민대표(부채)여대, 폭발

KBS 88체육관 평생교육원 ☎ 02-2600-8808

종 목	강 습 시 간	강 습 요 일	강 습 료
수 영	06:00 ~ 21:00	월수금/화목토	75,000원
헬 스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60,000원
골 프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180,000원
수영패키지 (수영+헬스)			85,000원
골프 패키지 (골프+수영+헬스)			220,000원

기타종목 : 볼링, 탁구,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스킨스쿠버, 포켓볼, 스포츠댄스, 요가

- 제천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043-651-8855)
-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요가, 아쿠아로빅, 북싱다이어트
- 목포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 061-284-8801)
- 수영, 헬스, 라켓볼, 맨스스포츠, 벨리댄스, 아쿠아로빅, 요가 휘트니스
- 빛고을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 062-956-9701)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아쿠아로빅, 배드민턴, 유아체능단

우 대 활 인 서 비 스

사 원 및 퇴 직 사 원	본 인	30%
	가 족	10%

KBS 비즈니스

www.kbs88.co.kr

회우 여러분은 지금...

등정

- ◆ 김삼준(동아방송대학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주임교수) / 대한음성학회 회장에 취임
- ◆ 김선초 / 1월 하순 가족과 함께 북경 탐방
- ◆ 김유철·신정은(‘한길로’ 발행인·편집인) / 친목모임 ‘KBS한길회’가 회보 ‘한길로’ 복호를 발간
- ◆ 성대석 / 1월 17일자로 임기 2년의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 ◆ 유종일 / 1월 17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후 분관 458호에 입원, 가료중
- ◆ 이광주(서화분과위원장) / 구립 23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 최고위과정 최고우회 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
- ◆ 이기창(LG Telecom CN MVNO사장) / 새 휴대폰 관측중(연락처: 010-2275-6775)
- ◆ 장정훈(청송회 회장) / 1월 18일 회원 53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
- ◆ 정용석(분당 FM 방송대표) / 1월 1일자로 성남분화재단 이사로 선임
- ◆ 지중학 / 공동저자로 ‘병사
- 28인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장-어머니’를 출간
- ◆ 최창봉·장한성(한국방송인회 이사장·회장) / 1월 24일 저녁 6시 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방송인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

자녀결혼

- ◆ 최승민 / 아들(1/14)
- ◆ 이길만 / 딸(1/14)
- ◆ 장형일 / 딸(1/20)
- ◆ 김장식 / 딸(1/21)
- ◆ 최상태 / 아들(1/28)
- ◆ 윤 군 / 딸 2월 10일
- ◆ 오후 4시 강남문화센터
- ◆ 호천웅 / 아들 3월 17일
- ◆ 낮 1시 분당 서울대병원 앞 아름다운 교회

산수

- ◆ 이건호 / 1월 3일
- ◆ 강정도 / 1월 20일
- ◆ 김무영 / 1월 21일
- ◆ 김순경 / 1월 26일

익수

- ◆ 송재극 / 1월 1일
- ◆ 우제탁 / 1월 18일
- ◆ 김인태 / 1월 19일

고회

- ◆ 조근제 / 1월 6일
- ◆ 이명환 / 1월 22일
- ◆ 우민호 / 1월 25일
- ◆ 최중립 / 1월 26일

부음

- ◆ 김중현 / 상 배(12/22)
- ◆ 조태제 / 빙모상(12/29)
- ◆ 이창훈 / 빙모상(12/31)
- ◆ 권오승 / 상 배(1/5)
- ◆ 유원길 / 상 배(1/9)
- ◆ 김용호 / 모친상(1/13)
- ◆ 김준호 / 부친상(1/20)
- ◆ 이계진 / 모친상(1/20)

별세회우

김갑동 회우가 구립 2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1968년 KBS 입사 방송



국에 청원 경찰로 입사, 1989년에 퇴직했다. 유족은 아들3, 부인은 10여년전에 별세했다.

※기사 쪽주로 '문화산책'이 한 회 쉽니다 -편집자

사우회 합창단원 모집

연락처: 011-418-5261 박인채 이벤트 위원장

주소변경 회우

- 정기재 / 476-842,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215 (031-772-0154)
- 조성환 / 139-837,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17-56(2층)
- 지진용 / 에드크리 네트워크(주) 고문 (02-2007-9013)
- 편역순 / 565-802, 전남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97-2 동원동1-707 (063-291-1856, 011-9644-3021)
- 한석훈 / 303-120,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동 205-307
- 현 서 / 456-821, 경기 안성시 공도면 용두리 주은풍림동 107-1209 (031-616-2891)
- 홍범균 / 151-017, 서울 관악구 신림7동 1735-1 관악산 휴먼시아3동103-1501 (02-862-7264)
- 홍준모 / 010-4436-6085 h390926@naver.com
- 정영근 /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서영마을 401호
- 김 현 /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760 오통공원 현대휴터문 101-1305
- 김광일 / 140-030,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8 동부센트레빌동 103-202 (02-790-9984)
- 김지영 /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75 침암1차동 102-1702 (02-934-5653)
- 이태행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3-15 클래버빌 402 2002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010-6255-6038, 02-2016-2300)
- 김중식 / 405-775, 인천 남동구 서창동 태평2차동 201-905 (032-465-0281)
- 김중휘 / 472-845,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그린랜드 103-1108 (031-592-1683)
- 권영원 / kwouga2909@yahoo.co.kr
- 허필갑 / 010-5377-1502
- 조도길 / 430-80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100 삼계빌 3층 301(사무실)
- 편역순 / 565-802,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97-2 동원동1-707 (063-291-1856, 011-9644-3021)
- 조성환 / 139-837,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17-56 (2층)
- 한석훈 /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동 205-307
- 현 서 / 456-821, 경기 안성시 공도면 용두리 주은풍림동 107-1209 (031-616-2891, 010-2324-2890) hyunseu35@hanmail.net
- 이한철 / 127-887,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5-15 백운빌라 5동 201호 한미기술 (010-6207-7646, 02-786-3174)
- 김용운 / 446-939,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연원마을 상원신재빌동 104-1201
- 김무열 / 158-754, 서울 양천구 목동5동 목동4단지 416-204 (02-2654-4116, 011-249-4114)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전개
지상파 DMB의 전국화



이일로 회우 (방송제작기술협회 회장)

“TV”도 아닌 것이 드라마가 나오고, 전화기도 아닌 것이 어디나 통화가 되니 분명 좋은 세상이다” DMB폰에 대한 소회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지금은 時空을 초월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TV를 시청하며 인터넷을 하고 어디에나 통화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생명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과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기술(BT: Broadcasting Technology)을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함을 느낀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방송이란 한정된 정보를 말하기에는 정보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진화하였다. 따라서 IT기술이다, IT산업이다, 하는

말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기술을 통틀어 말한다. 방송 통신 융합기술이 계속 발전 진화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 통신 융합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IPTV(Internet Protocol TV)이다. 지난해에 IPTV의 전망에 대하여 말한 바 있어 이번에는 DMB에 대하여 전망해 보겠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던 지상파 DMB(KBS, MBC, SBS, YTN, KMMB에서 TV 1채널과 라디오 3채널, 데이터 1채널 그리고 U1에서 TV 2채널 데이터 1채널)를 방송위원회에서 2006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7년 3월부터는 전국에서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지상파 DMB의 경우, 가용주파수 대역이 1개 채널로 제한되어 있어 TV 1개 채널(6Mhz)을 이용하여 DMB 3개 채널로 나누어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를 1개 사업자로, 그리고 6개 권역별로 2명씩 1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로 는 KBS가 단독으로 6개 권역(강원권, 제주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어 2개의 사업자를 신청받았는데 MBC계열사와 지역 민방만이 본격적인 지상파 DMB 시대가 될 것이다. 이번 비수도권역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서 방송위원회는 1개 사업자당 2개의 비디오채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KBS의 2개 채널(1채널=KBS Star: 1TV 중심의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 2채널=KBS Hart: 2TV 중심의 가족문화 채널로 그리고 데이터 채널인 T-DMB DATA채널(KBS Clover)는 기

존의 Navigator와 연동으로 실시간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를 2007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MBC 계열은 4월, 지역 민방 계열은 6월 개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2개 비수도권역 사업자들도 2개 채널의 비디오(1채널은 기존 지상파 방송을, 2채널은 기타 콘텐츠를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 방송을 서비스하게 됨으로 6개 권역별로 KBS를 비롯하여 모두 6개의 DMB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DMB 방송의 사업성이나 광고 등 경제적인 측면은 본 난에서는 논의로 하고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는 단말기를 포함하여 DMB 폰의 판매 수량은 약 200만대, 위성 DMB 수신용 단말기 포함 DMB폰은 약 100만대가 보급 되었다하니 이제 본격적인 지상파 DMB방송을 서비스하게 되면 그 수량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지하철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중계기 설치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정숙 회우

笑門萬福來
-다시보고 싶은 소리들-

▲ 파출소장의 명 관결
전라북도 'ㄴ'을 1971년 辛亥年 정월 초사흘, 땅부자 'ㅅ'씨는 수컷 돼지를, 현찰부자 'ㅁ'여사는 암컷 우랑종을 소유한 여장부. 'ㅅ'씨가 'ㅁ'여사를 찾아가 돼지 혼사(?)를 제의, 새끼를 반반씩 갖기로 하고 뒷뜰에서 성대한 교미를 마쳤다.
석달(3월) 3주 3일만에 돼지 새끼 9마리를 순산, 'ㅅ'씨 돼지새끼를 가지러 갔으나 일연지하여 반대, 오리발 아닌 겨위발을 내민 'ㅁ'씨를 끌고 파출소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ㅅ'씨는 'ㅁ'씨의 입맛을, 'ㅁ'씨는 'ㅅ'씨의 수컷을 교미 시킨 다음 서로 석달동안 바뀌어서 사육하라는 관결로 매듭.
▲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던 '74년 정월이면 새마을 지도자 '신춘방담'에서 마을 자람이 주류였다.
오늘 나오신분 :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박00씨

남원군 이백면 이00씨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우00씨
완주군 용진면 구만리 풍00씨
완주군 봉동면 수만리 300씨
끝으로 봉동면 구여리 강00씨
'ㅅ'아나운서 30분 프로그램을 1시간 30분만에 헛갈림 속에 끝.
▲ 버스가 취했다
“관광을 마치고 귀경하는 술취한 버스가 약 10미터 아래로 굴러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도립병원에 입원...” 경계기획원이 신설된 70년초(?) 불철 관광을 마치고 가다 구레 화원사 뒷재에서 굴러진 교통사고, 중앙방송국에서는 임시뉴스로 방송 기사를 송고한 'ㄴ'국에서는 의기양양·“따르릉 따르릉~” 유난히도 벨소리 큰 자석식 전화 수화기를 들자마자 “어! 이 XX야! 머 머 머가 취해!?” “ㄷ”기자 “???!” 너 누구여!? 영!” “야 이, 크 보도과장님은 씩씩대고 그때서야 기사를 다시본 ‘ㄷ’기자 “아빠사” 술취한 버스라니 분

명 운전사라고 썼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버스가 취해 버린걸” 두 사람은 호주로,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뒷소식. 바벨수록 돌아가고 기자는 흥분이 금붙임을 교훈.
▲ “거듭 거듭 전례드립니다”
1960년대 라디오 아침 낮방송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엔 정파,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방송 한 겨울 새벽 5시, 눈비비고 일어나 5분간 중앙 뉴스를 받고 차체로 5분간 방송순서를 편성, 1일 방송진행을 알리는 시간, 지역국이라 히터는 커녕 난로마저 피울 수 없는 시간. 조정실 엔지니어는 조그마한 석유난로로 추위를 녹이지만 스튜디오는 냉방, 그러나 아나운서는 균용담요를 온몸에 감고 방송순서를 읽어내려 갔다. 5분을 마치고도 'ON AIR'는 그대로, 아나운서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하고도 밖을 향해 엔지니어는 보이질 않고... “거듭 거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0분을 초과해도 종문소식 꺼질줄 모르는 'ON AIR'. 원탁을 타치고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나온 아나운서 “어! 이거 머!? 콘솔에 미관을 박고 곤히 잠든 엔지니어, “야, 임마! 날 셋어 불꺼 불꺼!” 스튜디오 오 마이크를 타고, 전파는 새벽 공기를 타고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여의동호회’는 KBS 전 현직 기술인들의 친목 모임이며 구립 29일로서 만 8년의 연륜을 쌓아 가고있다. 이 모임은 회칙, 회장, 회비도 없으며 지킴이만이 있는 완전 개방형이다. 매월 3째 화요일에 참석해서 자주 만나지 못한 선배 후배들이 시간의 안부와 정답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현직에 있는 후배와 퇴직 회원들이 방송기술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선배들의 경험담을 경청한다. 그리고 동호회는 애경사 때 선후배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모든 동호회 소식은 2005년 10월 28일 개설된 홈페이지(http://gokeoc.com)와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다. 홈페이지 가입 회원은 12월말 현재 2천여명. 여의동호회 홈페이지는 다양한 메뉴와 서브 메뉴를 차려 놓고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구분출 사우회 이사가 여의동호회 지킴이가 되고 있으며 그의 사무실(KBS 별관옆 경도빌딩508호)을 모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PC2대, 바둑과 장기도 준비되어 있어 여의도 나들이가 있는 날 회원들이 많이 들린다고...

○ 회원 1,200명 시대
마침내 2005년 4월 11일로 2003년 8기 출범당시 700명이었던 회원이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이했고 2007년 1월 현재 1,200명의 회원의 조직으로 면모를 바꾸었다.
○ 미디어 활동과 홍보발간
2003년부터 방송문화 연구위원회(기획인력, 홍보출판, 사이버, 미디어 비평)를 발족시켜 1년에 2회~3회 발행하던 회보를 2004년 4월 1일부터 타블로이드 판으로 매월 4면내지 8면을 발행해 오고 있다.
분회 소식이나 방송관련 뉴스, 회원 동정, 회원 경조사, 회원 논평등 각종 글 등을 실어 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회원들의 의식조사도 병행 실시해서 회보에 반영 하는 등 회원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왔다. 그리고 전현직사원간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KBS 본사나 해외지국, 계열사, KBS 외의 관련단체에도 배포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500만원 내외의 광고를 유치해서 충당해 왔다.

위기를 일신하기도 했다.
○ 창립기념일 제정과 KBS Home Coming Day
사우회는 동우회 시절부터 KBS 사우회 창립, 사단법인 KBS 사우회가 정부인가를 거치면서 사우회 창립일에 관한 견해가 엇갈려 왔다. 2006년 정기총회에서 사우회가 사단법인체로 정부인가를 받아 법적으로 탄생한 6월 1일을 창립기념일로 채택하고 첫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는 정연주 KBS 사장의 제의를 발행해 오고 있다.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마련의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7기 때부터 실천에 옮겼다. 임원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부터 200만원까지 출연한 협찬금과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연간 2000만원씩의 기금을 적립해서 현재 1억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2003년 7월 정연주 KBS 신입 사장과 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KBS 본사 또는 계열사의 임원, 간부진을 비롯한 해당부서 직원과의 수시만남이 이루어졌고 KBS친정 찾기와 계열사 방문 등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시에 다른 유관기관과도 교류를 가져왔다.

제 8, 9기 사우회-되돌아 본 4년

에 따라 KBS 안에서 갖게 되었고 200여명의 회원과 KBS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전원 또 많은 현직 후배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한 감동을 '친정나들이'로 후배들과 돈독한 우의를 쌓았다.
○ 사이버 공간을 통한 회원 의사소통
8기 사우회 발족과 더불어 방송문화 연구회가 추진한 홈페이지가 2004년 4월 21일부터 회원들에게 펼쳐지고 이메일을 통한 의사교환이 활성화 되었다. 이에 힘입어 2차에 걸친 컴퓨터 강좌를 실시했다. 동시에 KBS 전산시스템실의 협조하에 E-MAIL주소 찾기 운동을 벌여 450명에 달하는 회원이 E-MAIL을 통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보화시대를 실감하게 해 주기도 했다.
○ 1억여 원의 기금 확보
사우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

해서 사무실 겸 휴게공간을 넓혔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여의도 KBS 건물에 회원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5월 10일 오후 5시 사우회 세미나실이라는 공간을 열고 문을 열었다.
○ 친목 모임의 활성화
작년 송년의 밤 행사에는 무려 270명의 회원이, 그리고 작년 창립기념일에는 200명에 달하는 회원이 참여하여 대 성황을 이루며 사우회의 위상을 새삼 높였다. 각종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님도 계속 늘어나 작년 봄 등산대회에는 100명에 달하는 회원님이 참여했고 탐식, 문화재탐방행사나 바둑대회, 낚시대회, 사진촬영, 서예활동에도 회원들의 관심이 더해가는 가운데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 임원진 의견교환의 활성화
【정리 : 사우회 사무국】